

아들 키우기 두려운 시대

김은남/시사저널 문화팀장

이제 갓 걸음마 풀이 잡혀가는 두 살배기 아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아들 키우기가 겁이 난다. 아이 몸이 튼튼하지 않을까봐, 또는 머리가 똑똑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유전자(?)로 보나 집안 환경으로 보나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우리 아들이 혹시 마초(macho, 근육질의 남성 우월주의자)로 자라지는 않을까, 나는 그것이 두려다.

마초라는 말이 생소하다고? 그렇다면 혹시 영화 <왓 우먼 워트>를 보셨는지. 거기에 보면 이혼한 전 부인이 주인공인 멜 김슨을 일러 '남자의 남자'라고 칭하는 대목이 나온다. 목청 크고 돈 잘 쓰고 주로 사내들로부터 인기가 좋은 남자, 집에서 아무리 마누라가 아파 죽어가도 친구의 부름이라면 0.1초 만에 뛰어 나가는 남자. 아마도 이런 남자를 마초라 보면 대강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물론 이 험악한 세상에 남자아이가 좀 거칠고 우악스럽게 자란들 뭐가 대수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겠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마초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마초는 우리 사회에 널려 있다. 호주에 어학 연수를 떠났던 남동생은 첫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교수로부터 이런 뜬금없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문을 조용히 닫고 다니세요." 알고본즉 한국에서 유학 온 남학생들한테만 주어진 경고였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

동생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문을 팡팡 여닫는 학생은 한국 남학생뿐이었기에. 그뿐인가. 외국 여행 중 지하철에서 유난히 양 다리를 썩 벌리고 앉은 아시아계 남성을 만났다 싶으면, 그 남자는 십중팔구 한국인이기 십상이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태도는 남에 대한 몰이해로 이어진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와 다른 성(性), 나와 다른 계층, 나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한다.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자 6백여 명의 신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말이 많은데, 이처럼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도 나는 마초 문화가 낳은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이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함부로 깔보고 차별하는 것. 이 모두가 마초 문화의 산물이다.

문제는 이런 마초들일수록 미래 사회에서의 경쟁력이 급전직하로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청소년 대안학교인 '하자센터'에 놀러갔다가 교감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무릎을 친 일이 있다. 그 선생님 말에 따르면, '청소년 문제'는 있어도 '청소년 문제'는 점차 감소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란다. 이유는 간단하다. 21세기를 흔히 감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세상과 교감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남자애들이 갈수록 경쟁에서 뒤쳐지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이래저래 나는 아들 키우기가 두려다. P.P.P.K